



융합, 스마트化,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 2011 국제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설비전 개최



▶ 왼쪽부터

- ① 오두석 [한국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② 김재섭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단장] ③ 유태환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④ 이종훈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
- ⑤ 임철근 [(주)대륙 사장] ⑥ 지영배 [(주)일성종합기계 사장] ⑦ 최형준 [(주)새빛테크 사장] ⑧ Halid Yusuf Deputy Manger [케냐전력청 Deputy Ganger]
- ⑨ 조환익 [KOTRA 사장] ⑩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 ⑪ 최광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⑫ 김우겸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⑬ 김문덕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 ⑭ 이길구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⑮ 이포우 [한국남동발전(주) 기술본부장] ⑯ 이경춘 [한국전기신문사 사장] ⑰ 박찬진 [대한전기협회 부회장]
- ⑱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⑳ 한병문 [전력전자학회 회장] ㉑ 임승화 [한국전기공사협회 기술이사]

지식경제부,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와 KOTRA가 공동 개최한 '2011 국제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설비전(Global Electric Power Tech 2011)' 이 성황리에 폐막되었다.

국제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설비전은 지식경제부,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스마트그리드, 발전 및 원자력 플랜트 산업, 중전기 산업을 융합한 전력관련 전문전시회로써 전력산업의 글로벌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최 되었으며, 전력산업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기도, 한전, 발전6사,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등 전력유관기관 및 단체, 지자체 등 23개 관련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참가했다.

본 전시회는 전력플랜트 및 기자재 수출 진흥모델을 구축한 전시회로써 1,700여개의 전기관련 회원사와 100만 전기인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와, 전세계 102개의 Korea Business Center를 보유한 KOTRA가 공동 주최하여 국내 및 해외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하여 범국가적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는 전시회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로 9회째 개최된 본전시회에는 국내·외 21개국, 263 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전력 플랜트 및 기자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대양주, 북미,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CIS, 유럽 등 26개국 72개사의 발주처, EPC기업 및 유력수입상이 대거 방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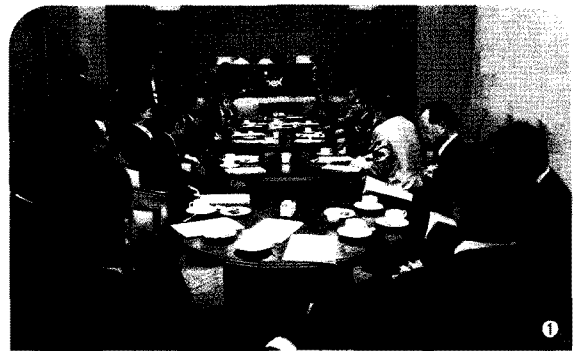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일본 현지에서 원전설비 긴급 복구용 발전·변전 기자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Kansai(關西)전력, Chugoku(中國)전력 등 일본 중서부를 대표하는 전력대기업과 일본 최대 전기설비 기업인 Mitsubishi社가 방한해 우리기업들과 구매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화력·수력 발전소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 RAO ES VOSTDKA(러시아 극동전력공사)와 17,390MW급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인 인도 NTPC(인도 최대 발전사), 스마트그리드 관련 설비 및 기자재 구매 상담을 목적으로 방한한 독일 SIEMENS(세계적인 전기전자기업)등과 상담을 벌이는 등 해외 주요 발주처에 한국 전력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케냐 발전청으로부터 화력발전소 2기를 수주하여 13억불의 수출계약을 달성하였으며, 한전·ACWA Power(사우디) 컨소시엄이 “Rabigh IPP(화력발전, 1,200mw) 프로젝트” 25억불(2건)을 수주하였고 삼화전기가 인도 CROMPON과 15만불을 계약 등 전력기자재 4억 8천만불(22건)을 수출

계약하여 단순 행사성 전시회를 벗어나 지식경제부로부터 인증 받은 “국제전시회” 위상에 걸 맞는 비즈니스 전문 전시회로 성장·발전하고 있다.

우리협회는 IT융합, 스마트화,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그동안 실증·보급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스마트그리드 관련 산업을 향후 본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를 계기로 융합제품과 시장을 포괄하는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모델구축과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① 개막식 참석 귀빈 환담(VIP실)



② 전시회 개요 브리핑(협회 김성희 상무이사) ③ 개막식 취재열기 ④ 전시회 전경

2011 국제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설비전 개요 (Global Electric Power Tech 2011)

- **기간/장소** : 2011. 5. 18~5. 20 / COEX A홀(舊 태평양홀)
*개막식 : 2011. 5. 18(수) 11:00
- **주최/후원**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KOTRA / 지식경제부
- **전시규모** : 10,368㎡, 388개 부스(21개국 263업체)
- **부대행사** :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해외발주처 조달설명회, 방한바이어 환영오찬, World Smart Grid Seminar, 스마트그리드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세미나, 2011 스마트그리드연구회 학술대회, 전기품질·진단 기술세미나, 제1차 방사선 선진문화 포럼,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서울관광 프로그램

2011 국제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설비전 결과

▣ IT융합, 스마트화,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

- 전력망에 IT를 접목하여 에너지 효율이 최적화되도록 하는 차세대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상용화 이전단계인 실증·시범보급 단계에서 융합제품과 시장을 포괄하는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모델구축의 본격화

▣ 전력 및 스마트그리드, 중전기, 발전 및 원자력 플랜트 산업의 융합화

- 참가업체 : 21개국, 263업체(10,368㎡), 388부스
- 참관객 : 25,913명(해외 1,368명 포함)

▣ 전시회와 수출상담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비즈니스 전문 전시회

- 26개국, 72개사 초청(발주처, EPC, 유력 수입상)
- 전시 참가업체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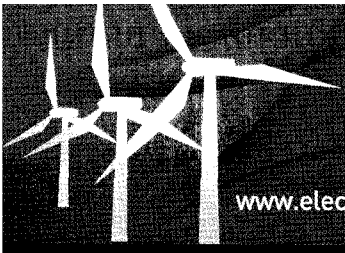
상담건수(건)		상담금액		대리점(건)		현장계약	
국내	국외	국내(백만원)	국외(천US\$)	국내	국외	국내(백만원)	국외(천US\$)
9,860	893	318,040	24,242,147	238	106	746	1,178

▣ 전시회 특별관 운영(해외 Agent, Distributor, Principal 미포함)

- 한국전력산업관 : 한전, 발전6사, 협력중소기업 67업체 100부스
- 전력 및 스마트그리드관 : 효성 등 74업체 160부스
- 경기도관 : 대륙 등 7업체 10부스
- 해외 참가업체관 : 국제구리협회 등 17업체 33부스
- 해외바이어관 : 독일 SIEMENS 등 26개국 72개사 86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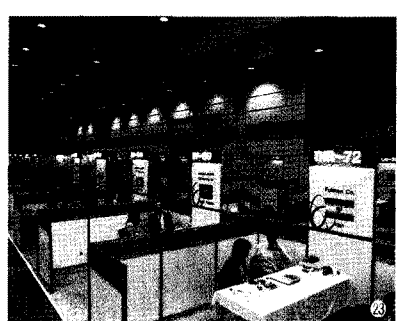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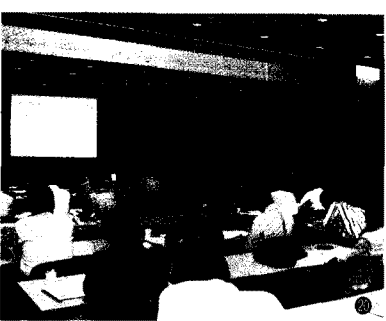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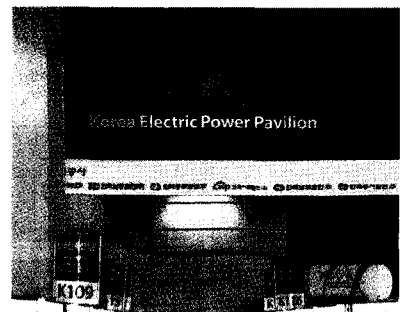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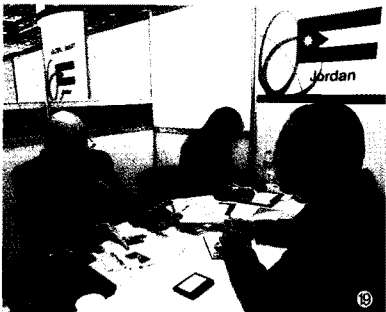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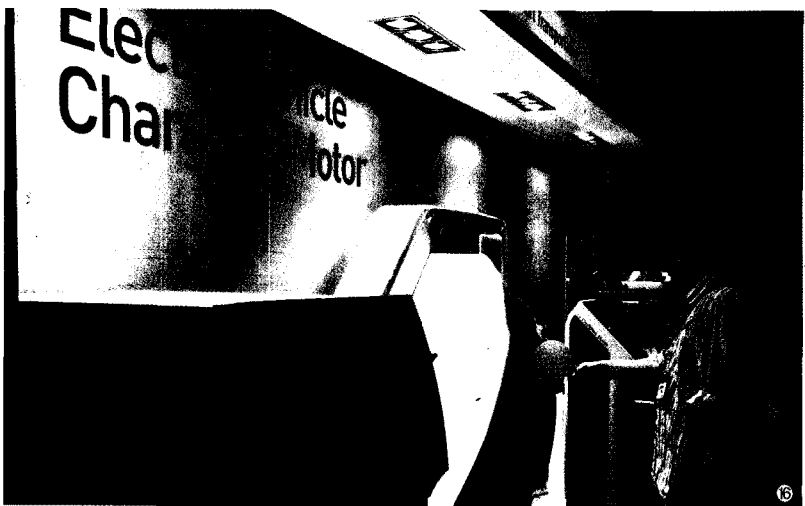


- ⑤ 전시회 입장하는 귀빈들
- ⑥ VIP 전시회 관람
- ⑦ EP KOREA(스마트 UPS)
- ⑧ 대륙(전압차단기)
- ⑨ 전시회 현장등록
- ⑩ 대학생 단체관람
- ⑪ 콜로리안씨(스마트 태양광 발전기)
- ⑫ 바(열 교환기 등)
- ⑬ 조양전기(케이블트레이)
- ⑭ 플러시스시스템코리아(계측기)
- ⑮ 디이시스(전력보호계전기)



www.electrickorea.org

Global Electric Power Tech
2011 국제스마트그리드 및 전기기술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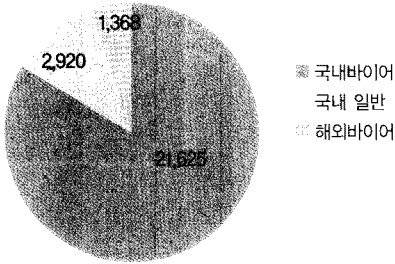


- ⑥ 효율(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 ⑦ 인텔스(스마트 에너지저장시스템)
- ⑧ 한국인터넷빌링(현정퀴즈)
- ⑨ 해외바이어 수출상담(요르단)
- ⑩ 전기품질·시스템 세미나
- ⑪ 한국전력산업관 전경
- ⑫ 해외바이어 수출상담(이집트)
- ⑬ 해외 바이어관 전경
- ⑭ 스마트그리드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기술세미나
- ⑮ 스마트그리드연구회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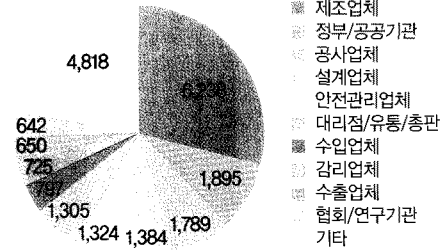


2011 국제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설비전 참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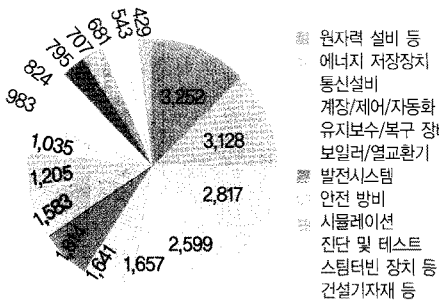
국내·외 참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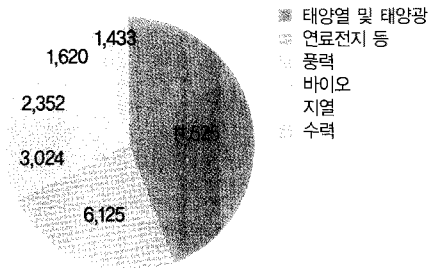
업종별(중복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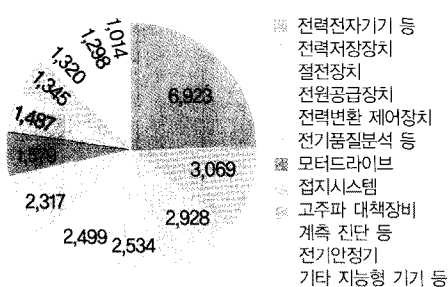
+ 원자력/ 발전 플랜트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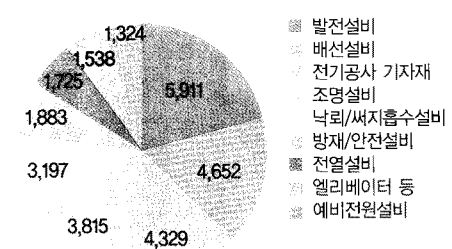
+ 신재생에너지 관련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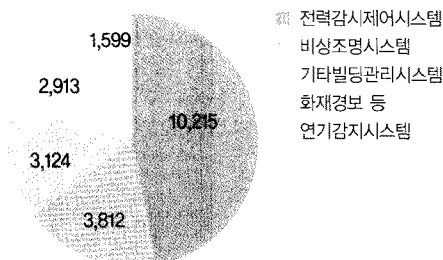
+ 전력전자/ 전기품질 및 네트워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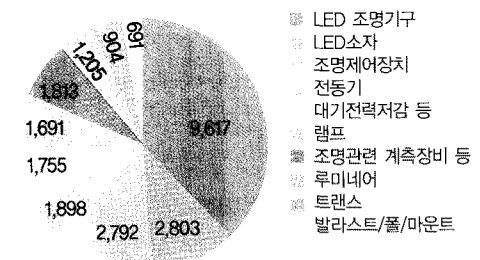
+ 전기설비 및 관련 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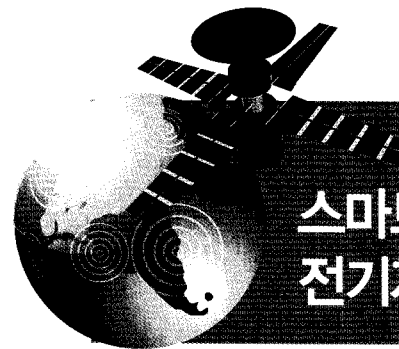


+ 계측 제어 및 관리시스템



+ LED/ 고효율 기자재





스마트그리드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기술세미나 개최



글 | 기술지원팀

협회(회장 최광주)는 지난 5월 19일(목)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유관기관 및 관련분야 업무담당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그리드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최광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산업의 변곡점에 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우리 전기인들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으며 협회도 진화해가는 전기차 세계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전기설계·감리·전기안전관리 등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세미나는 '2011 국제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설비전' 부대행사로 개최되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자동차에 관하여 전력산업동향과 향후 전망 및 발전방향 등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본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추진 정책(지식경제부 이옥헌 팀장) △스마트그리드와 EV충전 시스템 표준화(국스마트그리드협회 이현기 팀장) △스마트 그리드 체제하에서의 고객 전기설비 안전성 확보 방안(한국전기안전연구원 배석명 부원장)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및 사업화 방안(LS전선(주) 한섭 책임연구원) △전기차 시대의 도래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구조변화(한국전기차산업협회 배효수 국장) △전기차 배터리 교환, 임대 및 재생사업 기술/시장성 분석 및 사업화 방안(주)피엠그로우 박재홍 대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 졌다.

앞으로 협회는 본 세미나를 계기로 전력산업계 최선정보 및 기술노하우에 대해 발빠르게 전달하고 새로운 발전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기인의 권익향상과 전력산업이 한층 더 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